

‘좀비사회’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제언*

- 휴먼포비아를 넘어서 공감과 환대로

성신형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조교수)**

엄국화 (남서울대학교, 시간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액체 근대와 좀비 사회
- III. 좀비 콘텐츠 내러티브 분석 - 이창의 존재론적 모형
- IV. 휴먼포비아(Human-phobia)를 넘어 공감과 환대로
 1. 공감
 2. 환대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2.07>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7353).

이 논문의 최초 제목은 “좀비사회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제언: 호모포비아를 넘어 용서와 환대로”였으나,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homo)’라는 용어가 현재 동성애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호모’ 대신 ‘휴먼(Human)’으로 변경했다. 또한 ‘용서’보다는 ‘공감’으로 접근하라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들여 ‘공감’을 주제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한다.

** 주저자, 교신저자, seongshil@ssu.ac.kr

*** 공동저자, goocaa79@gmail.com

• ABSTRACT •

A Christian Social Ethical Approach on Zombie Society:
Through Sympathy and hospitality beyond Human-phobia

Seong, ShinHyung (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Uhm, Kook-hwa (Lecturer, Namseoul University)

While diagnosing the modern age as a zombie society, this study analyzed its characteristics based on Bauman's liquid modernity. In order to find an ethical alternative, the narrative of 〈Kingdom〉, a representative zombie content in Korea, was analyzed. This study looked at the ontological adventure of Lee Chang, the main character of 〈Kingdom〉, through the ontological adventure process of Levinas. Lee Chang's 'sympathy' for the reality of people and his determination to sacrifice himself to approach others was a concrete practice of 'hospitality.' Along with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ed sympathy and hospitality as an ethical alternative to overcome human-phobia prevalent in zombie society. For the approach to sympathy, the concept of Seo(恕) in the East-Asian tradition was examined, and Levinas' philosophical reflection and Derrida's ethical meaning on hospitality were also considered. Finally, to find the possibility of unconditional hospitality as claimed by Derrida, the dialectical meaning of Ricoeur's love and justice was examined, which was interpreted as a dialectical practice of hospitality and sympathy.

Key words: Zombie Society, Liquid Modernity, Human-phobia, Sympathy, Hospitality,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좀비사회’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로 야기된 휴먼포비아를 넘어서기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적 좀비 콘텐츠의 내러티브를 분석을 통해 사회적 좀비 현상과 한국사회 휴먼포비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좀비사회에 만연한 휴먼포비아를 넘어서기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서(愆) 개념에 기초한 공감과, 타자의 현상학적 가치에 주목한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환대’ 개념에 주목하고, 공감과 환대의 변증법적 관계를 살피면서 좀비사회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좀비사회이다. 현대사회를 좀비사회로 진단하는 데에는 크게 사회적 이유와 심리적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인 사회적인 이유는 현대인들이 ‘피로사회’, 즉 ‘탈진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는 근대 이후 하나의 목표인 성과주의를 향해서 달려온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성과주의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안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한 사회,¹⁾ 급기야 인간은 탈진 상태로 영혼 없는 몸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²⁾ 한편 이 사회는 성과주의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 즉 성장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잉여 인간’³⁾을 생산해내면서, 사회적 좀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⁴⁾ 그 두 번째 이유는 사회·심리적 이유

1)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65.

2) 이봉호, 『광화문에는 좀비가 산다 - 무채색 종이 어른의 초상』, (서울: 스틱, 2015), 25.

3)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서울: 천지인, 2010), 125-130.

4) 김경학 · 이유진 · 김지혜, “K 좀비” 밖에서 노는 좀비... 남친 좀비... 한복 입은 좀비,

로, 현대인들에게 불어 닥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류는 불안해하게 되었으며, 각종 사회적 재난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타인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타인을 인간이 아닌 좀비로 부르게 되었다.⁵⁾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이런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인간에겐 희망도 정의도 사랑도 무의미하다. 영혼이 사라진 육체는 좀비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을 집어삼키면서 하루를 살아간다. 이 사회는 이렇게 좀비사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적 좀비에 주목한다.⁶⁾ 한국적 좀비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좀비 서사는 감염에 의한 괴물이 됨, 이렇게 만들어진 괴물과 인간의 갈등, 생존을 위한 투쟁 등으로 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서구의 좀비와 한국적 좀비가 비슷하다. 그러나 서구에서의 좀비는 인간이 생존 즉 투쟁의 과정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국적 좀비는 자신의 현실을 투영해서 만들어진 괴물(좀비)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⁷⁾ 즉 한국적 좀비 콘텐츠에는 자기 삶의 현실이 투영된 좀비와 나(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거대한 권력의 희생자이기도 하고, 내 가족이기도 하다. 때때로 좀비들은 서로 연대하기도 하고, 또 좀비와 인간이 연대하기도 한다. 이 연대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⁸⁾ 즉 한국적 좀비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사회를 반영하는 이야기들이 좀비와 사람과의 서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귀엽고 짤하고 ‘별종이네,’ 경향신문 2월 18일.

5) 복도훈, “좀비 어팩트,” 『기획회의』, 494(2019), 30-33.

6) 좀비의 발전 배경과 서구 문화의 좀비 콘텐츠 발전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자의 논문 “액체근대론에 기초한 좀비 콘텐츠 ‘킹덤’의 주요 인물 분석”(『인문사회21』, 13(1)(2022), 2795-2806)을 참고하라.

7) 김경학 외, “K좀비 밈에서 노는 좀비... 납킨 좀비... 한복 입을 좀비, 귀엽고 짤하고 ‘별종이네,’”

8) 송이름, “문화세대의 유희적 자기 반영,” 『기획회의』, 494(2019), 44-47.

본 연구는 한국적 좀비 콘텐츠의 내러티브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적 좀비 콘텐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킹덤>이 지닌 서사구조를 통해서 ‘한국적 좀비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밝히고자 한다. 한국적 좀비 콘텐츠 내러티브 분석은 한국적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 구조를 이해하고 그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21세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좀비 자본주의이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에 계속 노출된 경제 현상을 ‘좀비자본주의’라고 한다.⁹⁾ 불확실성의 시대 즉 유동적 근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좀비들과 비슷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¹⁰⁾ 확고한 것을 빼앗겨버린 공포 상황에서 인간관이나 공동체관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¹¹⁾ 이제 좀비는 더 이상 공포나 성서적 의미의 묵시록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삶의 형식으로 유추해 볼 때 현대인은 좀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좀비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이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역기능인 부정의와 혐오, 배제의 근거인 휴먼포비아를 넘어서 공감과 환대의 기독교사회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좀비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 바우만의 액체근대론에 주목하여, 좀비 사회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에, 한국적 좀비 콘텐츠 내러티브 분석을 위해서 <킹덤>의 주인공 이창의 이야기를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의 과정으로 살펴본다. 이창의 내러티

9) 크리스 하먼(Chris Harman), 이정구·최정찬 옮김, 『좀비자본주의』, (서울: 책갈피, 2018), 10장.

10)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의 책 『액체 근대』에서 현대 사회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하면서, 현대 사회는 이미 과거 이성 중심의 유토피아적인 낙관론을 중심의 근대성에서 벗어나서 유동적 근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1) 후지타 나오키, 선정우 옮김, 『좀비사회학』, (서울: 요다, 2018), 71-72.

브를 통해서 좀비 사회에 만연한 휴먼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적 대안을 위해서 공감과 환대에 주목한다. 특히 공감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서(恕)에 개념에 집중하면서, 이창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다산 정약용의 공감론을 탐구한다. 다음으로 환대에 대해서는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환대론을 살핀 후에, 그 윤리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리쾨르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실천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환대(사랑)와 공감(정의)의 변증법적 실천을 제안한다.

II. 액체근대와 좀비 사회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이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른 괴물이 아니라, 좀비를 이용한 콘텐츠(영화, 드라마 등)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¹²⁾ 좀비를 인간의 모습에 비춰서 설명하자면, 우선,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좀비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는 좀비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인 1970년대의 좀비의 모습으로, 좀비의 기원이 시체를 주술로 살려내서 힘든 노동을 시켰다고 알려진 것에서 기원했다. 이후 점차로 좀비는 쇼핑물에 창궐하게 된다. 이는 소비사회를 살아가면서 쇼핑물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흡사 좀비와도 같기 때문이다.¹³⁾ 한편 사회·심리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좀비는 뇌가 없는 인간을 상징한다. 인간의 형상은 있지만, 생각할 수 없는 좀비는 주체적 성찰을 하지 못한 채, 사회적 욕망이나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다닌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폭력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한 번 좀비가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중독된 상태로 살아간다.¹⁴⁾

12) 이철, “좀비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 『신학사상』 178(2017), 219.

13) 위의 글, 209-211.

콘텐츠에서 드러나는 좀비의 모습은 크게 여섯 가지로 진단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좀비는 나(자신)의 이야기이다. 둘째, 좀비는 자신밖에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이다. 셋째, 좀비에게는 그 어떤 관계도 남아있기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립된 존재이다. 많은 좀비가 함께 몰려다니기는 하지만, 그런 행동은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넷째, 좀비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든다. 초창기 좀비에 비해 최근 좀비들의 달려드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다섯째, 좀비는 혐오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인간은 좀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끝으로 좀비는 세상의 끝, 인류 문명의 종말을 암시하는 아포칼립스적인 요소를 지닌다.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시킨 기술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긴다.¹⁵⁾ 이러한 점에서 좀비 콘텐츠는 물질만능의 자본주의(資本主義) 시대에서 자기중심의 자본주의(自本主義)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¹⁶⁾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좀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좀비 사회는 액체근대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액체근대(Liquid Modern)’라는 개념은 폴란드의 유대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주장하였다. 바우만은 현재 사회의 모습은 국가가 강력한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지켜주었던 강력한 근대 시대를 벗어나서, 유동성의 시대, 즉 그 어떤 것도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진단하면서, 이러한 시대를 ‘액체근대’ 시대라고 불렀다.¹⁷⁾ 바우만은 액체근대의 모습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14) 위의 글, 211-213.

15) 위의 글, 213-219.

16) 위의 글, 219-221.

17)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서울: 도서출판 강,

이러한 설명은 앞서 언급한 ‘좀비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¹⁸⁾

첫째, 정치적 자유와 해방은 액체근대 시대의 인간에게는 더 이상 축복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¹⁹⁾ 이는 정치에 대한 근대적 믿음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진보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근대적 믿음은 사라지고, 근대화에 대한 과제와 책임의 규칙은 폐지되고 사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²⁰⁾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의미가 흔들린다. 아니 ‘개인’과 ‘시민’은 서로 전쟁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는 ‘사적인 것들’이 ‘공적인 것들’에 복속되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인 것이 공적 공간을 대체해버렸다.²¹⁾ 이러한 액체근대의 특징은 많은 사회적인 자원이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자원을 책임져야 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함을 드러낸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만 존재하는 좀비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둘째, 액체근대 시대는 포디즘(Fordism)으로 대표되는 무거운 자본주의, 즉 부피가 크고 고정불변의 삶을 개인에게 약속하는 자본주의적 삶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²²⁾ 액체근대 시대에서 세계는 표면적으로는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주고, 기회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처럼 보이지만, 그 맛은 달콤하지 않다.²³⁾ 왜냐하면 이것은 소비자 중심 자본주의이기 때문이

2009), 7-26.

18) 성신형, “액체근대론에 기초한 좀비 콘텐츠 「킹덤」의 주요 인물 분석,” 『인문사회 21』, 13(1)(2022), 2798.

19) 바우만, 『액체근대』, 32-35.

20) 위의 책, 49.

21) 위의 책, 64-65.

22) 위의 책, 94-96. 자동차 회사 포드(Ford)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생 그곳에서 일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아서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말한다.

23) 위의 책, 99-101.

다. 소비자 중심 자본주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의 거대한 욕망에 기초한 쾌락의 원칙을 따르는 시스템을 구성해서 사람들을 중독으로 몰아간다. 이동성과 유동성이 극대화된 소비 자본주의는 해방의 도구가 아니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소비하면 할수록 욕망에 포로가 되는 모순된 축복을 드러낼 뿐이다.²⁴⁾ 이러한 특징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좀비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셋째, 액체근대 사회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제공하는 시·공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저 ‘이동하는 군중’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유동적인 시·공간이 있을 뿐이다.²⁵⁾ 예를 들면, 공원, 쇼핑몰, 교회, 식당, 휴양지 등이 이런 공간들이다. 이런 공간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타인이 된다. 이런 곳에서는 ‘공공의 가면’이 제공되며, 이것을 쓰는 것이 권장된다.²⁶⁾ 이런 공간에서 필요한 것은 적절한 예의일 뿐, 타인의 타자성은 무효화된다.²⁷⁾ 존재의 가치는 한없이 가벼워졌으며, 관계는 영원성을 상실하고 순간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²⁸⁾ 이러한 액체근대의 관계성은 ‘몰려다니고 있지만, 철저하게 혼자서 살아가는’ 좀비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넷째는 일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다. 이 분석은 ‘진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질문에서 출발한다. ‘세상을 개선하기 위한 일’에 대한 생각과 의지도 불분명해지는 현상을 지적한다.²⁹⁾ 일은 더 이상 인류의 보편적 진보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평생의 과업이 아니라, 마치 ‘땀질’처럼 그저 부여받은 어떤 것이 되고 말았다, 일은 소비의 미학을 따라서 그저

24) 위의 책, 143-145.

25) 위의 책, 150-153.

26) 위의 책, 156-157.

27) 위의 책, 165.

28) 위의 책, 191-203.

29) 위의 책, 214-216.

감각을 추구하면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되고 말았다.³⁰⁾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의 유대 역시 유동적인 것이 되었으며, 연대 의식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사회적인 노동의 연대가 아니라, 소비적인 유대관계로 드러난다.³¹⁾ 이와 같이 노동의 의미의 변화로 사회적 연대가 무너진 모습 역시 좀비 사회의 일면이다. 종말론적 암시로 가득한 좀비 사회는 각자도생 사회이다.

끝으로, 액체근대 시대는 공동체의 의미를 뒤바꿔버렸다. 애국심의 기초가 되어온 민족주의가 유동적으로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³²⁾ 나의 삶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 공동체에 대한 가치에서 발전된 공동체주의 역시 유동적이다. 공동체의 가치를 따라서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할 뿐이다.³³⁾ 이러한 공동체의 공백에 다른 의미의 공동체들이 생겨났는데, 희생양을 정기적으로 바치는 카니발 공동체나, 개인의 소비적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짐 보관소로서의 공동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이다.³⁴⁾ 이러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는 공포를 벗어난 안전감을 제공해주지만,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³⁵⁾ 액체근대의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 없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좀비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상에서 좀비 사회의 현상을 바우만의 액체근대 현상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아포칼립스적인 흐름 가운데, 공동생활은 하지만, 공동체는 형성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끊임없이 물어뜯어야 하는 이 시대는 액체근대의 사회적 현상이

30) 위의 책, 225-226.

31) 위의 책, 260-261.

32) 위의 책, 271-281.

33) 위의 책, 290-293.

34) 위의 책, 310-317.

35) 위의 책, 318-319.

그대로 투영된 좀비사회이다.

III. 좀비 콘텐츠 내러티브 분석 - 이창의 존재론적 모험

본 연구는 좀비 콘텐츠 내러티브 분석을 위해서 한국의 좀비 콘텐츠 중 하나인 <킹덤>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킹덤>은 그 구성이 탄탄할 뿐 아니라, 좀비 사회가 보여주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을 모티브로 <킹덤>의 주인공 이창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살펴보고자 한다.³⁶⁾

러시아의 식민지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해서 2차 대전 기간에 프랑스 군인으로 참전하였다. 전쟁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레비나스는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시도하면서, 독일 존재론이 전체주의를 옹호했던 과오를 지적하면서, 존재론이 아닌 윤리가 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20세기 철학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윤리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존재론적 모험’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윤리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36) 본 연구의 주저자는 이미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킹덤> 내러티브를 분석한 바 있다. “한국적 좀비사회 내러티브 분석과 기독교윤리적 접근”(『한국기독교문화연구』 13(2020), 33-51)과 “액체근대론에 기초한 좀비 콘텐츠 「킹덤」의 주요 인물 분석,”(『인문사회 21』, 13(1)(2022), 2795-2806)이 기 발표한 논문들이다.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킹덤> 시리즈1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면서 한국 사회를 좀비 사회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발표한 논문은 <킹덤> 시리즈 1과 2의 주요 인물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좀비 사회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킹덤>의 전체적인 내러티브 분석이 아니라, 주인공 이창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레비나스가 주장한 존재론적 모험의 출발은 서구 존재론에 대한 회의적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과연 존재론은 근원적인 것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은 전체주의에 옹호하는 힘의 철학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³⁷⁾ 그 대답은 윤리이다. 왜냐하면 윤리만이 철학이 힘을 옹호하는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으로 출발한 존재론적인 모험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것은 얼굴의 현상학적 발견이다. 얼굴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얼굴이 걸어오는 말에 나는 대답한다. 이 짧은 과정이 윤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다. 대답하는 나는 얼굴의 의미를 이해한다. 나는 얼굴의 호소를 윤리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임은 매우 수동적인 과정이지만, 이 ‘받아들임’으로 얼굴의 명령에 대답하는 나는 비로소 주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얼굴의 현상학적 발견이다.³⁸⁾

이제 자연스럽게 존재론적 모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것은 모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 마치 예수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근원적인 관계의 발견이고, 희생하는 자신의 발견이며, 이를 통해서 대속의 주체로 우뚝 서 있는 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존재론적 모험은 대단원으로 발전하면서 막을 내린다. 그것은 대답하는 능력을 지닌 윤리적 주체로의 성장이다. 이 책임은 어떤 의무감에 마지못해 행하는 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의 호소에 대답하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관계를 발견한다. 그것

37) Emmanuel Levinas, “Is Ontology Fundamental?,”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ds.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2.

38)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183-189.

은 진정한 소통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나와 타인의 상호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가 훨씬 더 무거운 비대칭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자아중심성이 해체되고, 타인을 절대자로 받아들임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이다. 비로소 ‘나’는 진정한 ‘주체’가 된다.³⁹⁾

레비나스가 주장한 존재론적 모험은 개인이 어떻게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대표적 좀비 콘텐츠 〈킹덤〉의 주인공 이창은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모험을 경험하였다. 이창의 존재론적 모험은 권력의 폭력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좀비로 만들어 노예처럼 부리고, 민중들을 좀비로 사육해서 권력을 극대화하는 조학주와 그의 딸 계비 앞에서 있는 세자 이창은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⁴⁰⁾ 폭력의 위기에 맞서 이창은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한양을 떠날 것을 결심한다. 아버지를 치료했던 의사 이승희가 부산 동래성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⁴¹⁾ 이창의 존재론적 모험의 출발은 폭력에 맞설 용기에서 출발한다.

이창의 존재론적 모험은 자신의 처음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부산으로 가던 도중 만나게 되는 민중들이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좀비와 비좀비 사이의 상황을 살아가지만,⁴²⁾ 이들은 모두 자신의 백성이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백성에 대한 이창의 생각은 ‘백성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내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바뀐다.⁴³⁾ 이것은 존재론적 모험이 새로운 국면

39) 위의 글, 189-197.

40) 이 상황은 〈킹덤〉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의 구조이지만, 특히 〈킹덤〉 제1부 5화에서 스승 안현과의 대화에서 더 잘 드러난다. 안현은 세자를 격정하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41) 〈킹덤〉 제1부 1화.

42) 김일립은 그의 논문 “아름다운 청년은 어떻게 좀비가 되었나?”에서 인간을 ‘비좀비’라고 불렀는데, 연구자도 이 표현을 따랐다.

43) 〈킹덤〉 제1부 4화.

으로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창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 이러한 생각은 이 싸움이 절정에 향해서 올라가는 순간, 즉 권력의 폭력을 제압하고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후의 시간에 조학주의 권력을 빼앗은 계비 앞에서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고 절규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⁴⁴⁾

이창은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좀비와 비좀비는 모두 사람임을, 그리고 사람은 사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근원적인 관계의 발견이다. 자신의 안전만을 걱정하던 단계에서 백성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순간 이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다. 그것은 사랑의 희생이다. 이 경험은 모든 싸움이 끝나고, 계비가 다른 여인의 아이를 빼앗아서 얻은 원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 발생하게 된다.⁴⁵⁾ 의녀 서비가 원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자를 본 이창은 원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것을 결심한다. 함께 싸움을 이긴 대신들에게 “내가 죽은 것으로 하고, 원자를 살려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고 자신은 떠날 결심을 한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계비가 직접 낳은 왕의 후손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결심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창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감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여행을 떠난다.⁴⁶⁾ 이와 같이 이창은 자신의 존재론적 모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윤리적 주체로 성장한다.

44) <킹덤> 제2부 5화.

45) 계비는 자신이 잉태한 생명이 유산되자, 임신한 조선의 여인들을 모아 출산하게 한 후에, 잔인하게 산모를 죽이고, 그 이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46) <킹덤> 제2부 6화.

IV. 휴먼포비아(Human-phobia)를 넘어 공감과 환대로

좀비 콘텐츠는 이 시대의 휴먼포비아 현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내러티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직면할 대안도 보여준다. 특히 이창의 내러티브는 거대한 폭력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휴먼포비아를 넘어 설 수 있는 대안은 또 다른 폭력으로 휴먼포비아에 맞서지 않고 공감과 환대로 맞서야 함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공감과 환대의 가능성을 찾아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공감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서구적 개념의 공감(empathy)보다 동아시아 문화의 서(恕)에 주목하면서, 환대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환대로 출발하여 기독교 윤리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1. 공감

동아시아 문화에서 공감은 서(恕) 개념에 기초한다. 『논어(論語)』에 단 두 번 등장하는 ‘서(恕)’는 먼저 「이인(里仁)」편 15장에 나타나는데, 이는 공자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다. 공자가 “자신의 도가 하나로 꿰뚫었다(吾道一以貫之).”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자, 그의 수제자 증자(曾子)가 다른 문하생들에게 공자의 도는 ‘충서(忠恕)’라는 두 글자로 설명했다. 한편 「위령공(衛靈公)」편 23장에는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평생 힘쓸 한 마디를 부탁하자, 공자가 ‘서’ 한 글자를 주며, 그 의미에 대해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겼다.

『논어』의 “기소불욕 물시어인”은 오래전부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서양의 황금률(golden

rule)과 비교되어 왔다. 마테오 리치(Matte Ricci)의 『천주실의(天主實義)』와 더불어 가장 많이 알려진 서학서(西學書)인 판토하(Diego de Pantoha)의 『칠극(七克)』에서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증거로써, ‘남을 사랑하는 것[愛人]’을 ‘서’라고 정의하며, ‘애인’과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연결시켰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용서뿐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은 천주께서 말씀하신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과 같다.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하고 남에게는 나중에 한다. 네가 자기를 바로 할 수 없으면서 남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남을 잘못 사랑하는 것이다.⁴⁷⁾

이와 같이 판토하는 ‘애인(愛人)’이 ‘서’라고 해석했는데, ‘애인’은 ‘공감’에 기초한 해석이다.

한편, 서(恕)는 오랫동안 유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에 의해서 비로소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산은 서(恕)를 사서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다산은 “하나의 서(恕)를 잡고서 『논어』·『중용』·『대학』·『맹자』에 임할 때, 그 천만 마디 말들이 이 하나의 서(恕) 자의 풀이 아닌 것이 없다. 공자의 도는 참으로 이 하나의 서일 따름이니, 여기에 이를 다 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⁸⁾ 다산이 서를 사서의 핵심으로 본 근거는 판토하가 ‘애인’과 ‘서’를 연결시킨 것과 연관된다. 다산의 문집에는 『칠극』의 문장들과 비슷한 표현들이

47) 판토하, 정민 역, 『칠극』, (서울: 김영사, 2021), 195, “愛人者, 恕而已. 己所不欲, 勿施於人. 即天主所謂, 愛人如己. 是也. 愛人如己者, 則先己而後人. 爾不能正己, 而欲正人, 過愛人矣.”

48)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2권, (서울: 사암, 2010), 461, “執一恕字, 以臨論語中庸大學孟子, 其千言萬語, 無非一恕字之解, 夫子之道, 真是一恕字而已, 今不能悉數.”

적지 않게 등장한다.

‘서(恕)’는 동양의 공감 윤리의 기초이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서양선교사들의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작업 이후이다. 이것과 맞물리는 것이 경제체제의 변화 또는 사회체제의 변화이다. 16세기 후반부터 예수회 선교사들이 주도한 중국선교는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여기에는 윤리의식에 대한 변화도 포함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봉건사회의 몰락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의 태동이라 불릴만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동서양이 활발하게 반응하였다. 조선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서양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의 내러티브 분석의 모티브인 <킹덤>의 실제적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 특히 후기로 가면 그야말로 좀비사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한다.

다산 역시 그런 시대적 환경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며 관직에 나아가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정조의 죽음 이후 18년 동안 유배되어 저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동아시아 세계는 커다란 변화에 이미 들어간 상태였고, 조선은 여전히 스스로 변하지도 않고, 외부의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다산이 지은 ‘애절양(哀絶陽)’에서도 조선 후기 비극적인 현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마치 좀비사회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비극적인 현실을 맞닥뜨렸던 다산은 자신의 호를 ‘사암(俟菴)’이라고 지으며,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세상’이었다. 이러한 다산의 꿈은 바로 ‘서’에 대한 애착에서 잘 나타난다.⁴⁹⁾ 앞서 언급한 대로, 사서에 대한 핵심 단어를 ‘서’라고

49)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 가게 되어 18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정조 사후 더 이상 천주교에 대한 관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산의 형제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신봉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규정한 것은 이전의 유학자들과 다른 다산의 독특한 주장이었다.⁵⁰⁾

다산은 ‘서’에 대해 용서(容恕)와 추서(推恕)로 구분한다. ‘서’에 용서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산은 ‘추서’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종교적 의미의 ‘용서’와는 달리 정치적 용서에 가깝다. 또한 정치적 ‘공감’이기도 하다. 보통 ‘서’라고 하면, 공자의 설명인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따라 서양의 황금률과의 연관성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 정도로 이해하지만, 다산은 ‘서’를 구체적으로 ‘추서’라고 밝히면서, 이것은 ‘자수(自修) 즉, ‘자기 수양과 비슷한 것으로, 수양론적 차원에서 서를 ‘극기복례’와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했다.⁵¹⁾ 그러나 다산은 성리학적 수양론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실학적 행사(行事)의 윤리를 주장하면서 ‘서’에 대한 급진적 해석을 시도한다. 『논어』 「용야(雍也)」편 20장에 나오는 “선난이후획(先難而後獲)”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난(難)이란 어렵고 고된 것이요, 획(獲)이란 소득이 되어 이로운 것이다. 어렵고 고된 일은 남보다 앞서서 하고, 소득이 되어 이로운 일은 남보다 뒤에

관용도 용서도 없었다. 그러나 다산의 배교 선언이 인정되어 유배로 그쳤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시작은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해설이었다. 그리고 그 지난한 해석 작업 이후에 유배 말기에 『목민심서』를 비롯한 1표2서의 경세서(經世書)를 완성했다.

50) 그런데 서양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 데이비드 흄(David Hume)이 이성의 시대에 감정을 강조한 것이나, 그 제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 이전 첫 저술인 『도덕감정론』에서 ‘공감’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번역한 사서를 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양윤리의 전통을 연민 또는 공감에서 찾았고, 그것을 서양 윤리에 접목시키려 했던 것이다. 다산의 시도 역시 흄이나 스미스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51)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3권, (서울: 사암, 2010), 309,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우 주고, 자기가 달(達)하고자 하면 남을 달(達)하게 해 주고, 자기에게 베풀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은 모두 극기다. 그렇다면 극기(克己)는 서(恕)이니, 앞뒤의 말이 모두 한 가지 뜻이다(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施諸己而不願 勿施於人 皆克己也。然則克己爲恕。前後之言 皆一意也.)“

하면 이는 서(愬)이다. 힘써서 서를 행하면 인(仁)을 구함이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⁵²⁾

이 해석까지 보면, ‘서’에 대한 다산의 해석은 ‘공감’이며, 이것은 ‘역지사지’ 정도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급진적인 의미까지 확장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산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공감이다. <킹덤>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자들로 그려지는데, 다산 시대의 지도자들도 실제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소불욕 물시어인’의 소극적 공감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득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득을 생각하고, 어렵고 고된 일을 앞서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환대

레비나스는 환대를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논증한다.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형이상학이란 전체성의 틀에서 벗어나서 무한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서 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친숙한 공간(나의 집)으로부터 출발하여 낯선 세계(바깥 저쪽)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⁵³⁾ 나와 세계의 관계는 우선 내가 세계 속에 체류하고 있음을 아는 것, 즉 세계와 자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일차적으로 나는 자기 집에 실존함으로 자아를 동일자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자를 단순히 타자에 대한 대립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자아가 전체성의 일부가 되는 결과를 만들고 만다. 동일자가 타자성을 박탈하여 타자를 자신에

52)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2권, (서울: 사암, 2010), 85, “難者艱苦也 獲者得利也 艱苦之事先於人 得利之事後於人則恕也 強恕而行 求仁莫近焉”

53)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전체성과 무한』,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옮김, (서울: 그린비, 2018), 26-30.

게로 용해시켜버리지 않고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다. 이는 대면(face-to-face)하는 관계로 드러난다.⁵⁴⁾ 이는 타자에게로 나아감이며,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유 속에서 주체성이란,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정이 아니라, “타인을 맞아들이는 것,” 즉 “환대”이다.⁵⁵⁾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환대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환대의 무조건성에 대해서 논증한다. 환대는 낯선 이를 맞아들이는 행위로, 손님을 나의 집으로 맞이하는 초대와는 사뭇 다른 윤리적 행동이다. 손님을 나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그 어떤 놀라움이나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계획된 일로 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초대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행동이라면, 환대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놀라움을 경험하는 사건이다.⁵⁶⁾ 이런 점에서 환대는 무조건적이면서 절대적인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절대적 환대는 내가 나의 집을 개방하고, 이방인(성을 가진,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위상 등을 가진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미지의 절대적 타자에게도 줄 것을, 그리고 그에게 장소를 줄 것을, 그를 오게 내버려둘 것을, 도래하게 두고 내가 그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가지게 둘 것을, 그러면서도 그에게 상호성(계약에 들어오기)을 요구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조차도 묻지 말 것을 필수적으로 내세운다.⁵⁷⁾

54) 위의 책, 32-37.

55) 위의 책, 16.

56) 김남석·이상철, “난민 시대 환대의 기독교 윤리,” 『신학사상』 189(2020), 296-297.

57)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서울: 동문선, 2004), 70-71.

보통 다른 사람을 나의 집에 맞이하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당신을 보증하라’로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환대는 이방인을 ‘물음 없는 맞이’하는 무조건적인 사건이다.⁵⁸⁾

여기에서 환대의 형이상학적인 의미, 무조건적인 성격을 발견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조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환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환대를 윤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접근이다. 폴 리콥르는 그의 논문 “사랑과 정의”에서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독교 윤리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리콥르는 자신의 논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27절~38절(평지설교)에 주목한다. 본문에서 예수는 원수 사랑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중심인 32~34절에 황금률을 말한다. 황금률은 등가의 논리(정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넘침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누가복음에 대한 다수의 해석은 등가의 논리보다도 넘침의 논리가 더 중요하다고 해석하지만, 리콥르는 그 해석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황금률과 원수사랑을 서로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콥르는 본문은 넘침의 논리(사랑)이 등가의 논리(황금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률(등가의 논리)가 사랑(넘침의 논리)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원수 사랑의 계명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콥르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해주는’ 등가의 논리에 기초한 황금률에서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라’는 넘침의 논리에 기초한 황금률을 발견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설명한다.⁵⁹⁾

58) 위의 책, 71-72.

59) Paul Ricoeur, *Amour et justice*, 박건택 역, “사랑과 정의”, 『신학지남』, 239 (1994), 232-253. 그리고 최현 역, “사랑과 정의”, 『시민과 세계』, 7(2005), 490-512. 리콥르의 이 논문은 이상의 두 저널에서 번역하여 실었다. 본 논문은 최현의 번역을 주로 참고하였다.

여기에서 공감과 환대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발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공감이 유교의 황금률인 ‘기소불욕 물시어인’에 기초한다면, 환대는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한다. 기독교 윤리는 ‘사랑’이라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현실의 가능성으로 그 기능을 할 때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환대를 실천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의 공감은 윤리적인 실천을 추인해내는 것으로, 환대의 불가능성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본 연구는 좀비 사회의 특징을 바우만의 액체근대론에 기초하여 좀비 사회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 윤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 좀비 콘텐츠 <킹덤>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 과정을 통해서, <킹덤>의 주인공 이창의 존재론적 모험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중의 현실에 대한 이창의 ‘공감’과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자에게 다가가는 희생에 대한 결단은 ‘환대’를 위한 결단이었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본 연구는 좀비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휴먼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적인 대안으로 공감과 환대를 제시하였다. 공감에 대한 접근은 동아시아 문화의 서(恕) 개념을 살펴보고, 환대에 대한 레비나스의 철학적 성찰과 그에 대한 데리다의 윤리적 의미를 함께 고찰하였다. 끝으로 데리다가 주장한 무조건적 환대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리쾨르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의미를 고찰하면서, 이를 환대와 공감의 변증법적 실천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현대 좀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윤리적 실천의 대안을 제시되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

의 연구와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큰 과제가 남게 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사회 현상에 대한 매우 깊은 성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실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분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사회학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구체적 윤리적 실천 대안을 찾는 것은 앞으로 추구 과제로 남기고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김경학 · 이유진 · 김지혜, “K좀비’ 밭에서 노는 좀비... 남친 좀비... 한복 입은 좀비, 귀엽고 짱하고 ‘별종’이네,” 경향신문 2월 18일.
- 김남석 · 이상철, “난민 시대 환대의 기독교 윤리.” 『신학사상』 189(2020), 279-306.
- 김성훈. <킹덤 시즌 1(1화-6화)>. 넷플릭스 드라마, 에이스토리, 2019.
- _____. <킹덤 시즌 2(1화)>. 넷플릭스 드라마, 에이스토리, 2020.
- 김일림. “아름다운 청년은 어떻게 좀비가 되었나?” 『인문콘텐츠』 46(2017). 270-303.
- 데리다, 자크(Derrida, Jacques). 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 레비나스, 임마누엘(Levinas, Emmanuel). 김도형 · 문성원 · 손영창 옮김. 『전체성과 무한』. 서울: 그린비, 2018.
- 리콥르, 폴(Ricoeur, Paul). “사랑과 정의.” 박건택 역, 『신학지남』 239(1994), 232-253; 최현 역. 『시민과 세계』 7(2005), 490-512.
- 바우만, 지그문트(Bauman, Zygmunt).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서울: 도서출판 강, 2009.
- _____. 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서울: 천지인, 2010 a.
- 박인제. <킹덤 시즌 2(2화-6화)>. 넷플릭스 드라마, 에이스토리, 2020.
- 복도훈. “좀비 어팩트.” 『기획회의』 494(2019), 30-33.
- 성신형. “액체근대론에 기초한 좀비 콘텐츠 「킹덤」의 주요 인물 분석.” 『인문사회』 21』 13(1)(2022), 2795-2806.
- _____. “한국적 좀비사회 내러티브 분석과 기독교윤리적 접근.”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3(2020), 33-51.
- _____.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277-310.
- 송아름, “문화세대의 유희적 자기 반영.” 『기획회의』 494(2019), 44-47.
- 이광호 외 역. 『대학공의(大學公議)』. 서울: 사암, 2016.
- 이봉호. 『광화문에는 좀비가 산다- 무채색 종이 어른의 초상』. 서울: 스틱, 2015.

-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서울: 사암, 2010.
- 이철. “좀비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 『신학사상』 178(2017). 201-243.
- 판도하. 정민 역, 『칠극』. 서울: 김영사, 2021.
- 하먼, 크리스(Harman, Chris), 이정구 · 최정찬 옮김. 『좀비자본주의』. 서울: 책갈피, 2018.
- 한병철 저,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 후지타 나오야, 선정우 옮김. 『좀비사회학』. 서울: 요다, 2018.
- Levinas, Emmanuel. “Is Ontology Fundamental?,”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ds.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논문투고일: 2022년 03월 12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01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현대를 좀비 사회로 진단하면서, 그 특징을 바우만의 액체근대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고, 그 윤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 좀비 콘텐츠인 <킹덤>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 과정을 통해서, <킹덤>의 주인공 이창의 존재론적 모험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중의 현실에 대한 이창의 ‘공감,’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자에게 다가가는 희생에 대한 결단은 ‘환대’의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본 연구는 좀비 사회에 만연한 휴먼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적인 대안으로 공감과 환대를 제시하였다. 공감에 대한 접근은 동아시아 문화의 서(恕) 개념을 살펴보았고, 환대에 대한 레비나스의 철학적 성찰과 그에 대한 데리다의 윤리적 의미를 함께 고찰하였다. 끝으로 데리다가 주장한 무조건적 환대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리콥르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의미를 고찰하면서, 이를 환대와 공감의 변증법적 실천으로 해석하였다.

주제어: 좀비사회, 액체근대, 휴먼포비아, 공감, 환대, 기독교사회윤리
